

민주 “尹 3·1절 기념사, 매국노 이완용과 무슨 차이 있나”

박홍근 “세계사 변화 준비 못해 국권 상실 발언, 日 지배 합리화” 정의당 “역사관 의심가는 자학사관 궤변사...과거 해결 의지 없어”

더불어민주당은 2일 윤석열 대통령의 첫 3·1절 기념사를 두고 ‘매국노 이완용의 말’, ‘친일 본색’ 등의 거친 용어를 써가며 파상공세를 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반일 감정’을 자극하며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나타난 분열 및 위기 국면을 넘기기 위한 시도라고 맞받아 쳤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가운데 ‘우리가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 받았다’는 부분을 언급하며 “매국노 이완용과 윤 대

통령의 말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 일제 강점과 지배를 합리화하는 식민사관”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정부의 대일 본 골종 외교만 재확인한 셈”이라며 “일본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머리 숙이는 비굴한 외교로는 정상적 관계 개선이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친일 본색’마저 드러냈다”며 “우리는 힘이 없으니 일본 덕을 보는 게 맞다”고 주장한 매국노 이완용

발언과 윤 대통령의 발언은 그 인식의 궤가 같다”고 비난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MBC 라디오에 나와 “일본 총리가 3·1절 기념사 하는 것 같았다”고 일갈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에서 “통치자의 역사 인식이 비뚤어지면 외교전략도 파탄난다”며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의 시작은 일본 스스로 과거사에 대한 철저한 성찰과 반성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과거사 해결 의지를 찾아볼 수 없는 허망한 단념사였으며 역사관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자학사관 궤변사였다”고 혹평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비판이 국면 전환을 위한 것이라고 맞받아 쳤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

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죽창가와 ‘개팔’을 앞세워 위기 탈출을 시도하고 있다”며 “새로운 방탄복으로 사법 처리를 피해갈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이 이번 3·1절 기념사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배경에 체포동의안 표결 위기 국면을 피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재명 의원이 독도에서 180km 떨어진 동해 공해에서 진행된 한미일 연합훈련을 두고 친일 국방이라고 발언했다가 망신당한 게 잊으셨다”며 “법의 심판을 받으라는 지엄한 민심을 죽창가로 덮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인가”라고 거듭 강조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도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한일관계는 늘 고민이 많다.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지 않다. 모든 것이 합

께 얽혀있다”며 “그레도 양국 국민들은 과거보다는 미래를 보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기념사가 친일 사관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한국과 일본에는 한일관계와 관련해서 두 가지 정도 세력이 있는 것 같다”며 “한 쪽은 어떻게든 과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자는 세력, 또 한쪽에는 어떻게든 반일 감정, 혹은 혐한 감정을 이용해서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세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연 어느 쪽이 좀 더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고민하고 미래세대를 위해서 고민하는 세력이겠냐”라며 “우리 현명한 국민들이 잘 판단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오후 국회 대표실에서 비공개회의를 마친 뒤 대표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순신 사태는 계급문제...윤 대통령 사과해야”

SNS에 “학폭 가해자만 승승장구...친윤 검찰공화국의 스카이크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일 ‘정순신 사태’와 관련해 “검사 아빠가 계급이 돼버린 신분제 사회의 단면부터 총체적 인사 참사와 책임 회피까지, 현실은 더 지독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친윤 검찰공화국의 스카이크슬’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드라마보다 더한 현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스카이크슬’은 기득권층의 사교육과 특혜 등을 다룬 드라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태의 대책

으로 ‘학교폭력 근절’을 지시했다”며 “잘못 짰었다. 이 사건은 학교 문제가 아니라 계급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부모 잘 만난 가해자가 서울대 입학까지 하며 승승장구하는 동안 피해자는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하며 후유증에 시달렸다”며 “아버지가 고위직 검사가 아니었다면 상상 못 할 가해”라고 적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해명은 더 기가 막히다”며 “검색 몇 번 해보면 알 수 있는 사건에 대해

‘본인이 말하기 전에 알 수 없다’며 하나같이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증할 수 없었던 게 아니라 검증할 생각조차 안 했던 것 아니냐”며 “대통령이 낙점했으니, 검증 담당자들이 온통 같은 ‘친윤 검사’ 식구들이니 ‘프리패스’한 것 아니냐고 국민들은 묻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인사 검증과정에 대해 낱낱이 밝히고 인사 참사 책임자를 문책하라”며 “윤 대통령이 직접 피해자와 국민 앞에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여의도 브리핑

“고흥에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구축 이행을”

김승남 의원, 한화에 촉구

더불어민주당 김승남(고흥보성정동강진) 국회의원 2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우주발사체 단조립장을 전남 고흥군에 구축해 ‘전남 고흥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지정과 조성에 협력하겠다”고 약속한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윤석열 정부가 ‘전라남도 고흥군에 우주발사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최근 한국형발사체 고도화사업 체계중합기업으로 선정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발사체 단조립장을 고흥군이 아닌 ‘3개 시군을 대상으로 정주여건 등을 평가하여 최종 1곳을 선정하여 조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전남도가 같은해 8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고흥군을 국가 우주발사체 산업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고흥군은 발사체 단조립장 조성에 필요한 대규모 부지와 적정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숙사와 아파트를 건설해 제공하고, 설비보조금 및 상하수도 시설비 등을 지원하는 등 파격적인 지원을 약속해왔다.

김승남 의원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발사체 단조립장을 정부 정책과 전혀 관련 없는 곳에 건설하겠다고 결정한다면, 이는 정부 정책 기조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결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발사체 단조립장을 고흥군이 아닌 다른 지역에 건설한다면, 고흥군민들이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



지방정가 라운지

‘세계 도자기엑스포’ 유치 협력 방안 모색

차영수 전남도의원

차영수(더민주·강진) 전남도 의원은 최근 강진군 음악장작소에서 전남도의회 동아리 모임 주최로 열린 정책연구 토론회에서 강진을 비롯, 목포·무안·영암이 공동 개최를 준비중인 ‘세계 도자기엑스포’ 유치 및 개최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강진군은 인근 목포와 무안, 영암과 공동으로 전남도 주관의 ‘전남도 세계도자기 엑스포’를 개최하는데 의견을 모으고 정부에 국제행사 승인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강진군 등은 ‘전남도 세계도자기엑스포 포럼’을 열고 엑스포 개최를 위한 당위성 정립과 도자산업 발전 방향도 논의했다.

차 의원 등은 이같은 점을 들어 도자산업 종사자의 소득 증대를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객 500

만 명 달성을 통한 관계인구 늘리기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도자기 엑스포 개최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전남도의회 동아리 모임은 전남 시군의 공통 현안과 전남 미래 발전을 위한 연구 모임으로, 차 의원과 박선준(더민주·고흥) 의원을 포함한 도의원 14명이 지역구, 소속 상임위원회와 상관없이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한 건설적 방안을 마련하는 취지로 활동 중이다.

이들은 또 이날 모임을 통해 ▲한우값 폭락에 따른 축산농가 지원 대책 마련 ▲귀농귀촌 청년정책 의견 청취 및 대응 방안 등의 공통 현안을 논의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명품매장가맹점모집

(구찌, 버버리, 프라다, 발렌티노 등 약 1,000여개 명품 브랜드 취급)

모집지역

- ▲ 광주(남구, 서구, 광산구)
- ▲ 전북(전주)
- ▲ 전남(여수, 목포, 순천)

운영

- ▲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 ▲ 온, 오프라인 판매 시스템
- ▲ 네이버 및 인터넷 플랫폼 입점 판매중
- ▲ 점주로 입점 가능(기본 급여)
- ▲ 현 본점 매점 성업중
- ▲ 명품샵 투자자 대 모집(수익율 : 년 15% 확정) (담보제공 및 물품제공)

본점

-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용봉 전자 랜드 보짝 옆) 필 명품관

010-2288-0849 / 062-511-0849

건물·주택 리모델링, 신축, 지붕공사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건물 리모델링


갈라강판 지붕공사


주택 (외, 내부)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농막

옥상스틸방수

M 모던건설 시공문의 T. (062)531-3530, H. 010-9229-3530

사무실 광주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 서구 서항2길3(서항동) 전상하